

“통합특별시, 시행령·시스템 통합 속도”

강기정 광주시장, 특별법 시행령 27일까지 마련 6월 공포...2587개 자치법규·행정시스템 등 정비 시·도의회, 통합의회 출범 구성 실무 협의 착수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특별시 준비 상황에 대해 “통합특별법 통과로 빠대는 세워졌고, 이제 시행령과 자치법규, 시스템 통합 등 실행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재정지원 특례와 권한 이양, 첨단산업 육성 등 핵심 제도를 담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광주·전남의 2587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3일 공포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통합 시 출범 첫날인 7월 1일부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100여 개 행정정보시스템과 2792개의 공인, 72종의 공부 보완·수정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의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통합의회 구성 협의에 착수했다.

양 시도의회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사

무처장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 회를 열고 통합의회 구성 방향과 절차, 주요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통합의회 출범을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로,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시도의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의회 출범 시까지 주요 과제를 발굴·협의·조정하고, 의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등 공동 검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국혁신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덕수 전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기획비서관을 각각 2호·3호 인재로 영입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명창환·김덕수, 혁신당 시장 후보 영입

(여수) (나주)

조국 “지선 3강 전략에 정확히 들어맞는 인물”

조국혁신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덕수 전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기획비서관을 각각 2호·3호 인재로 영입했다. 명 전 부지사는 여주시장, 김 전 비서관은 나주시장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인재 영입식에서 “두 분 모두 내일 당장 일을 시작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장형이자 실무형이면서 전문기적 식견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미 해결책까지 준비해두신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분은 ‘진보·개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강한 인물’ ‘지역을 알고 혁신에 강한 인물’ ‘부정부패 근절에 강한 인물’이라는 지방선거 3강 전략에 정확히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명 위원장은 여수시 주삼동장·순천시 부시장·전남 행정부지사 등 30년간 기초·광역·중앙부처를 거치며 역량을 검증받았다.

전남 행정부지사 재임 당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출생기초소득제도 도입을 이끌고, 신재생 에너지 및 미래 전략 산업의 기틀을 닦는 등 도정 실무를 총괄했다.

김 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 시절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등 25년간 국회와 중앙정부를 거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조율해왔다. 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나주의 오랜 난제였던 호혜원 약취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송원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광주시가 전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에 참석해 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청년들과 대화한 뒤 학생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통합, 청년에 기회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

강 시장, 송원대서 대학생·청년과 공감토크 청년발전기금 설치 등 통합 후 지역미래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광주전남 통합 이후 청년정책에 대해 소통했다.

광주시는 19일 송원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광주시가 전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를 열어 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청년

들과 대화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주역이 될 지역 대학생·청년들의 생각과 질문을 직접 듣고 광주전남 통합의 실질적 체감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과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통합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부 특전(인센티브)과 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 산업·일자리·생활 여건에 가져올 변화 등을 소개했다.

청년 지원 특별법 특례와 정책 방향으로 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청년 일자리 구축, 청년 지원정책 재정 지원,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청년발전기금 설치 등을 설명했다.

특별법에 반영된 ‘청년발전기금’은 청년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청년들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통합 이후 지역 발전 방향, 청년 일자리에 나타날 변화, 정주여건 개선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이후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모아 시너지를 일으키고,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일하며 삶을 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종교계와 함께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4대 종교계의 생명존중 간담회

광주시가 지역 종교계와 손을 맞잡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선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국무조정실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광주·전남지역 종교계 관계자와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 관계자들이 참석

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살예방 홍보스티커 배포, 종교지도자의 ‘생명지킴이’ 활동 참여, 설교·법문·강론 등을 통한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등을 중점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안내된 홍보스티커를 지역 내 종교시설과 편의점, 상점, 다중이용시설 등에 부착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상담 연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